


(차기회장 /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성명	이원재	
소속	동의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직위	교수	

존경하는 전기전자재료학회 회원 및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립 35주년이 넘는 우리 학회는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전기전자재료 분야 전문학회로서 학문발전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의 위상을 갖는 학회로 자리 잡기까지에는 수 많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활발한 학술 교류의 장이 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부회장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부회장의 역할은 회장님을 도와서 학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이신 여동훈 회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돕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원들과 많은 소통을 지속하고, 회장님께서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부회장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중심으로 학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다양한 학회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학회가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